

국내 유일 수제車 공장 영암에 들어선다

모헤닉게라지스 102억 투자
삼호읍 용당리에 착공
내년 4월 완공...年 200대생산
내년 10월 물량까지 예약 마감

대한민국 수제자동차를 대표하는 (주) 모헤닉게라지스의 생산 공장이 영암군에 들어선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22일 “영암군과 함께 유지한 (주)모헤닉게라지스가 21일 영암 삼호읍 용당리 일원에 수제자동차 생산라인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주)모헤닉게라지스는 지난 2014년 9월 회사를 설립해 경기도 파주에 본사를 둔 국내 유일의 수제자동차 제조기업으로, 이번에 영암으로 본사와 공장을 확장 이전하게 됐다.

전남의 튜닝 1호 기업이기도 한 (주)모헤닉게라지스는 1만4827㎡ 시설부지에 102억원을 투자해 모헤닉G(겔로퍼) 100대와 클래식카 100대 등 연간 200여 대의 수제자동차 제조 생산라인 등을 내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수제자동차 모헤닉G는 2017년 10월 출고 물량까지 모두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자동차 마니아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태성 (주)모헤닉게라지스 대표이사, 고병욱 (주)프로파워 회



영암 삼호읍 용당리에서 지난 21일 열린 (주)모헤닉게라지스 수제자동차 생산라인 착공식에서 김태성 (주)모헤닉게라지스 대표이사

와 고병욱 (주)프로파워 회장, 이낙연 전남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우승희 전남도의원, 박영배 영암군의장, 이태희 자동차부품연구원 센터장 등이 시삽을 하고 있다.

생산라인 착공으로 지역 주민 70여 명이 새 일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 9월 (주)모헤닉게라지스와 전남도, 영암군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후 도와 군의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모든 절차를 2개월만에 완료했다.

이날 착공식에서 또 (주)모헤닉게라지스와 메탄을 연료전지 원천기술을 보유한 (주)프로파워는 합작회사 ‘모헤닉파워팩토리’를 영암에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합작회사 모헤닉파워팩토리는 전기차용 연료전지와 배터리팩을 생산할 예정이어서 모헤닉게라지스의 미래 전기차 프로젝트 추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남의 F1경주장은 국내 유일의 국제 공인 1등급 서킷으로,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가 개최

되고, 자동차기업의 테스트 장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튜닝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은 전남 서남부권 경제의 큰 축이었던 조선업에 힘을 더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모헤닉게라지스에서 내년 말 자체 개발한 전기차의 국내 출시가 예정돼 있어 영암이 명실상부한 수제차와 전기차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영암=문병선기자 moon@kwangju.co.kr

첨단산단 근로자 152명 임차비 혜택

광산업진흥회 고용환경 개선 프로젝트 성과...2억2천만원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광산업 진흥회)가 지난 3월부터 추진중인 ‘광주첨단 창조경제 점프업 청춘프로젝트’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다.

광산업진흥회는 광주 첨단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빌라 등 근로자 기숙사 월세지원업체를 모집, 산단 기업 66개사 근로자 총 152명에게 2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임차비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16년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사업’의 일환으로, 광산업진흥회가 주관기관이 돼 국·지방비 9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됐다. 주요 산업단지 근무환경을 개선, 취업 희망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뒤 지역 내 산단 기업체에 취업을 연계하는 등 산단 내 기업의 우수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다.

광주첨단산단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광산업진흥회는지역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광주디자인센터와도 손을 잡았다.

이와함께 광주 주력산업인 광·스마트 가전·디자인산업 분야에서는 각 기관이 미취업자 총 75명에게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42명이 관련 기업에 취업했고 연말까지 10여명을 추가로 취업을 앞선할 계획이다.

이번 중소기업 기숙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아이오솔루션(주) 이재오 이사는 “지역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 미스매치에 따른 애로로 인력수급에 어려운 점이 많고 실질적으로 지역 중소기업도 근로자를 위해 복지혜택과 근로여건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번 사업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차 유류세 환급 2018년까지 연장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 표준화·전산화해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과 각종 시설물의 적정한 보수를 위해서는 관리업무 표준화와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전야연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담당자, 관내 아파트 동대표, 관리소장, 관련 업체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

트 관리 편람 설명회와 현안 협의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전야연 광주지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매년 관계 법령만 개정해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리업무를 전산화해 수시로 공개하고 대형공사를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인근 단지와 충전의 공사 내역 등을 참고해 표준화·전산화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안내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83.47 (+17.42) ↑ 금리 (국고채 3년) 1.74% (+0.01)
↑ 코스닥 610.74 (+1.41) ↓ 환율 (USD) 1176.10원 (-10.50)

졸라맨 허리띠...커피도 안 마신다

7~9월 식품품 지출 전년비 3.2% 감소...4분기 연속 줄어

가계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사상 유례없이 길어지고 있다. 기본 식량인 쌀과 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기호식품인 커피도 안마시는가 하면 옷도 안 사고 버티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9월 전국의 2인 이상 가구당 식품품·비주류음료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했다.

식품품과 비주류음료 지출은 작년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으로 줄고 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기간 감소세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 지출규모로 봐도 식품품·비주류음료는 올 3분기 5.1% 줄며 1년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 및 채소가공품’에 대한 실질지출 감소 폭이 17.3%로 가장 컸다. 8분기째, 그러니까 2년 내리 줄고 있다.

채소를 덜 먹으면 대신 밥이나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쌀을 포함한 곡물 소비(-7.9%)도 8분기 연속 줄고 있다. 육류(-5.5%)는 4분기째다.

신선수산물(-11.4%·7분기째 감소), 유제품 및 알(-2.2%·16분기) 등도 예외가 아니다. 해산물이나 우유 등도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다. 커피 및 차(-5.7%·15분기)와 같은 기호식품 소비는 감소세가 더 오래됐다.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실질 소득이 작년 3분기부터 뒷걸음질 치면서 여유가 없어진 가계는 의류 관련 소비에도 지갑을 꽂고 닫고 있다. 전국 가계의 올 3분기 의류·신발 실질지출은 전년동기대비 0.7% 줄었다. 14분기(3년6개월) 연속 감소다.

겉옷 상·하의 등을 포함한 ‘직물 및 의의’는 1.3% 줄며 2013년 2분기(-0.8%)부터 14분기째 잇따라 감소하고 있다.

가계의 3분기 소비성향은 71.5%로 작년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제조·유통 일괄형(SPA) 브랜드 등에서 저가의 의류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지출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스포티’ 벤츠...‘더 뉴 E 200 아방가르드’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중대형 세단 ‘더 뉴 E200 아방가르드’ <벤츠코리아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신형 E-클래스의 엔트리 모델 ‘더 뉴 E 200 아방가르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스포티한 디자인의 ‘더 뉴 E 200 아방가르드’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최신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가 채택돼 여유롭고

편안한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전면 유리에 내비게이션, 제한 속도 등의 정보를 컬러로 띄워 안전한 주행을 돕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 등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갖췄다. 가격은 6090만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새로운 혁신! 세상 어디에도 없던 디스포저

세계최초 BLDC 전자모터 음식물 분쇄기

SDR

SMART DISPOSER ROOT

2016 International CES

LAS VEGAS, January 6-9 (미국 2016 CES 출품)

황금맷돌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발명특허제품 ·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 환경부/상하수도협회 인증

10년 보장(모터)

10년 보장(모터)

3년 연속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을 빛낸 히트상품 선정

CES

특허청

환경부

동부화재

상/담/문/의

(062) 515-1144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한국임업진흥연구원 고사재(2008~2018)에 등록된 방염성능시험 합격 제품!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시트를 타고 번지지 않아서 안전한 방염 성능을 얻어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수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2/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나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들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8189호

2층외벽 단열방수 시공사례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